

문이다.

제자: 우리는 응당 어떻게 자비(慈悲)와 무위(無爲)의 관계를 처리해야 합니까?

사부: 나한의 경지, 보살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그는 사람의 정(情)은 없고 자비만 있다. 사람은 정(情)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곧 정 속에 잠기어 아주 헤어내기 어려운데, 정을 떠나지 못하면 곧 수련할 수 없고, 제고할 수 없다. 무위를 말한다면 이것은 수련 중의 일종 요구다. 우주 중의 무척 높은 경지 중에 도달해도 역시 이런 상태가 있다. 무엇이나 다 알고, 무엇이나 다 하기 싫으며,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데,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보다 더 간단하다. 머리가 비상하게 좋은 대학생인 당신에게 아주 간단한 나무 토막 몇 개를 여기 저기 놓아 두고, 그것을 가지고 놀라고 하면 당신은 놀고 싶겠는가? 당신은 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나무 몇 토막일 뿐인데, 그 무슨 놀 것이 있는가? 당신은 움직이려고도 않을 것이다. 수련 중에서 무위를 말하는 그것은 당신에게 업(業)을 다시 빚지 말라는 것이다. 정(情)에 들지 않고 무위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곧 자비(慈悲)의 경지 중에 있다.

제자: 저는 한 종합간행물의 과외편집자입니다. 법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의 『轉法輪(전법륜)』 등을 실으려고 하지만 지면이 제한되었기에 우리는 다만 임의로 일부 장(章)과 절(節)을 발췌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부: 좋지 않다. 하나는 당신들 간행물에形形色색의 무엇이나 다 있는데, 법을 신는다면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발췌는 실제로 단장취의인 바,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런 소위 문인들이 쉽게 베껴가서 사람의 어떤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절대 단장취의하지 말라.

제자: 노수련생이 연공장에 연공하러 가지 않는데, 사부님께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부님께서, 그들을 이런 환경 중에 가서 수련하게끔, 고무격려하지 않음이 좋습니까?

사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신들은 아는가? 나는 당신들을 제도함에 또 당신들의 이러한 일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不同)한 경지의 사람, 부동한 상태의 사람, 당신이 그에게 가라고 하는데, 그러나 당신은 그가 매우 괴로워하는 것을 모른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 일하는 것이, 그에 대해 말하면 귀찮기가 이만저만이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으면 곧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라. 법은 인연이 있는 사람을 제도한다. 다만 착할 것을 권고할 뿐이고 또 강박하여 그에게 수련하라고 할 수 없는데, 곧 이렇다. 여러분이 더욱 빨리 제고하고 하루 속히 원만 성취하기를 희망한다.

의 차이이며 과위상(果位上)의 차이이다. 물론 과위상의 차이는 당신 신체의 과립상의 차이를 조성할 수 있는데, 이 한 점은 확실하다. 그러나 과립의 차이는 선결조건이 아니며 心性(썬쌩)의 고저, 과위의 고저야말로 선결조건이다.

오늘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답을 했다. 신수련생은 책을 많이 보아야 하는바, 당신이 배우려 하고 수련하려 한다면 당신은 곧 가서 보라. 우리는 한 차례 법회를 열기가 힘든데, 내가 만약 당신에게 그런 초급적인 것을 말한다면 우리 이 좌석의 이번 법회는 헛되게 연 것과 같고, 여러분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법회를 여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빨리 제고할 수 있게 하고, 하루 빨리 원만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또 이 법으로 하여금 더욱 발양광대(發揚光大)하여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얻을 수 있게끔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번 법회 후에,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는 마땅히 하나의 대폭적인 제고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도 마땅히 법을 얻지 못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얻게 해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백인 중에, 또 다른 인종 중에, 제도되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얻지 못했다. 물론 이런 일을, 나는 여러분이 억지로 가서 하라는

아니다. 확실히 이런 것이 있다. 이 상태가 아니면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면, 나는 그것은 좀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나와서 연공하면, 당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 만약, 출근하므로 정말 시간이 없다면 역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당신이 편리한 대로 하라.

물론 중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들이 연공함은 아침저녁 모두 나와서 연마한다. 아침 4시에 나와서 하고 저녁 6시에 밥을 먹은 후 밖으로 나가 여러 사람이 함께 집단으로 연공을 하는데, 매일 두 차례이다. 그들은 이렇게 연공하는 것이 매우 좋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모두 각종 구실을 대며 이렇게 연마하지 않는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이 공을 어떻게 전하라면 당신들은 그렇게 따라서 하라. 보증하고 해로운 점이 없고 오로지 좋은 점만 있을 뿐이다. 당신들은 너무 바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당신들은 휴식을 잘 못할까 두려워한다. 당신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수련은 가장 좋은 휴식이다. 당신이 잠을 자도 다 도달하지 못하는 휴식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연공하여 너무나 지쳤기에 오늘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내가 연공하니 온몸이 가벼워져 하룻밤 자지 않아도 피곤한 감이 없고, 온몸에 힘이 솟는다고 말할 뿐이다. 하루 일을 끝냈는데

도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듯, 이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말하거나 혹은 기타 구실로 나와서 연공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모두가 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고 정진(精進)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물론 노수련생의 그 상태를 말하면 이것은 엄격한 구분이 있다. 그러나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도 자신이 그 구실로 나가지 않는다면 옳지 않다. 수련은 자신을 닦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제자: 고층공간에는 일찍부터 비행기가 있는데, 고층공간의 사람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비행기를 사용합니까?

사부: 나는 당신들과 말한 적이 있다. 부동(不同)한 공간, 즉 하늘 모든 곳이 곳곳마다 모두 부처이고 모두 신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 생명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이며 또 인류와 같은 이런 곳도 있지만 매우 적다. 그러나 외계인과 같은 그런 사람의 지역 또한 특별히 많다. 그는 날아야 하는 것이고 그는 비행기에 타야 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이 사상을 그런 곳으로 끌고 가고, 호기심으로 끌고 가게 할 수 없다. 그 생명은 몹시 복잡하고 무슨 모양의 세계든 다 있는바, 우주는 매우 번잡하다. 우리 지금의 지구에는

우리가 책을 팔고 돈이 좀 남았는데, 우리는 남은 그 자그마한 돈으로 즉시 일부 일을 하려한다고 말한다. 원칙상에서 보면 돈을 움직이지 않았으나, 실제적으로는 그래도 움직였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영원히 끝이 없고, 당신은 곧 돈을 저축하고, 재물을 쌓고 있는 것과 같게 된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우리가 법을 널리 선양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사소해서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하건대, 우리의 능력이 있는 수련생, 아마 그가 도말을 것이다. 예컨대 오늘 이렇게 큰 회의장소를 위해 우리 한 수련생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법을 얻도록 하기 위해, 돈을 내는 한 가지 좋은 일을 했다. 그는 아마 얻은 것이 더욱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곧 그런 뜻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걷는 길은 반드시 발라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길을 꼭 바르게 걸어야 한다.

제자: 층차가 높을수록 더욱더 본원물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곧 천녀(天女)가 꽃을 뿌리면 보살의 몸을 통할 수 있으나 오히려 나한의 몸은 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부: 이런 뜻이 아니다. 당신이 가리키는 것은 물질상(物質上)의 차이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경지상(境界上)

派)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대법을 선험할 때, 먼저 그들이 일찍이 어떤 것을 연마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며, 이것을 빌어 수련생을 흡인하는데요.

사부: 우리 어떤 사람은 이런 한 가지 속인 마음이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좋지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이틀간 발언에서 나도 발견하였는바, 또 어떤 사람은 늘 자신의 이전의 고만한 것을 말하는데, 총체적으로는 여러분이 말한 것이 모두 매우 좋다. 다만 어떤 사람은 속인의 마음을 나타내려 했을 뿐이다. 대법을 널리 선양함에, 당신은 당신이 이전에 배운 것을 전혀 거론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과 칼로 베듯 갈라섰는바, 그것이 당신에게 속하지 않으며, 또 당신이 얻으려는 것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두 법문 또는 많은 법문을 선전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은가?

제자: 사부님께서 보도소에는 돈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국 이 상업 사회에서는 어떤 일도 돈을 움직이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이 점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보도소에는 절대로 돈을 둘 수 없다. 현 단계에서

다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있으나, 그쪽에는 녹색과, 남색까지도 있으며 또 알록달록한 것도 있다. 그 형형색색 무슨 모양이든 다 있는데,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사람의 이 사상으로 더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

제자:法輪功(파룬궁)은 느슨하게 관리한다는데, 이와 유형적인 조직구조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부: 느슨한 관리는 유형적인 조직구조가 없다. 당신이 오고 싶으면 오고, 오고 싶지 않으면 당신은 가는데, 우리는 또 명부가 없다. 길으로는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지 않은가? 여러분은 모두 자원하여 배우고 있다. 예컨대 사람들은, 곳곳에서 사부님은 어디에 가셨어요? 하며 물어보고는 모두 와서 법을 듣는데, 이렇지 않은가? 내가 동원령을 내려 여러분에게 모두 미국에 와서 법을 들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다. 수련하고 수련하지 않고는 모두 자원이다. 일단 속인종의 관리방식이 있으면 어떤 속인마음이든지 모두 일어날 수 있고, 집착하여 수련할 수 없고, 난법(亂法)하게 될 것이다.

제자: “불성무루(佛性無漏)” 중의 ‘무루’는 무엇을 가리

킵니까?

사부: ‘무루’란 그것은 과거 불교종의 한 구절 선어(禪語)인바, 바로 불교종의 수련언어이다. 예를 들면 사람이 칠정육욕, 각종 집착심이 있는데 모두 정 때문에 조성된 것이다. 질투심, 과시심, 증오하는 심리 등 많고도 많다. 어느 한 마음이든지 모두 버려야 하는데, 어느 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남겼다면 이것을 곧 빠뜨림이 있는 것으로 여긴다. 빠뜨림이 있으면 곧 원만할 수 없다. 수련함에 빠뜨림이 없어야 하는데 한 가지 마음도 다 빼놓을 수 없다. 정말 빠뜨림 없이 수련되었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진정하게 원만을 이룰 수 있다.

제자: 매 한 차례 새로운 우주가 극히 높고 극히 높은 대 각자들에 의해 새롭게 조직된 다음 “眞(전) · 善(싼) · 忍(런)” 이 특성이 변했습니까?

사부: 이러한 문제를 당신들이 다시 제출하지 말고 생각 마저도 하지 말아야 한다. “眞(전) · 善(싼) · 忍(런)” 특성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법이 변치 않기 때문에 비로소 그 속의 생명과 물질에 변화가 발생한 것을 가늠해 낼 수 있다.

제자: 法輪功(파룬궁)의 음악이 연공인의 입정(入靜)을

아니다. 미래의 사람은 『轉法輪(전법륜)』이 있었음을 모를 것이다. 그럼 나의 법이 비록 높게 말하고, 아주 많은 천기(天機)를 누설했을지라도, 법을 듣는 사람이 장래에 정말로 원만을 이룬다면, 나는 단지 신에게만 강의해 준 것으로 되지 않는가? 사람은 여전히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비로소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모두 원만 성취하기를 희망한다.

책을 말한다면 처리하기가 아주 쉽다. 우리는 어느 시간에 그로 하여금 한 글자도 없게 하여 모두 백지로 변하게 할 것이다.

제자: 『轉法輪(전법륜)』 판본에 글줄이 빠진 것, 구절이 빠진 것이 있는 현상을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사부: 해적판 『轉法輪(전법륜)』에 이런 일이 비교적 많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하라. 글자가 빠졌거나, 글줄이 빠진 것을 발견하면 당신이 펜으로 글을 베껴 써넣어라. 금후에 또 글자가 빠졌거나, 글줄이 빠진 이런 책이 있으면 사지 말라. 즉 말해서 원본을 그대로 찍어서 조판한 것은 살 수 있으나 새롭게 다시 조판한 것은 절대 사지 말라.

제자: 어떤 수련생은 일찍이 기공의 각문(各門) 각과(各

의 손가락, 당신의 입은 당신이 그것에게 어떻게 움직이라
면 그것은 곧 그렇게 움직인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당
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사상이 입정(入定)하려고
하면, 그것은 그 사상을 조용하지 못하게 한다. 당신이 그것
에게 조용해지라고 할수록 그것은 더욱 조용해지지 않는데,
그것이 당신인가? 당신은 그것을 당신이라고 승인할 수 있
는가? 그것은 당신이 후천적으로 형성한 관념과 업력이다.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제3자로 간주하라. 당신은 생각하라.
'나는 네 생각을 지켜보겠다.' 이번에 당신이 뛰어나와 당신
을 정말 분명하게 갈라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과 경계
선을 똑똑히 갈라놓은 것과 같으며, 당신 자신이 자신을 찾
았기에 이 역시 수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빨리 그것
을 소멸해 버릴 수 있다. 당신이 정말 그것을 확실히 갈라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무서워하는데, 곧 그것을 없애
버리게 된다.

제자: 『轉法輪(전법륜)』은 후세사람에게 남겨주는 것인
데, 그 위엔 모두 사부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부
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사람은 사부님의 형상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부: 『轉法輪(전법륜)』은 후세사람에게 남겨주는 것이

도와주는 외에 또 어떤 특수한 것이 있는지요?

사부: 주요 목적은 사람을 도와 재빨리 입정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사상 속에서 속인중의
그런 서로 쟁탈하는 것, 난잡한 것, 장사가 잘되고 안 되는
것, 돈을 얼마 버는가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곧
이런 방법을 취한다. 음악의 방법으로 일념이 만념을 대체
한다. 음악의 배후에도 대법의 내포를 첨가해 넣었다. 그러
므로 당신들은 들을수록 듣기 좋으며 들을수록 편안하다.

제자: 정공(靜功)을 연마할 때 동시에 사부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이 나의 설법을 들으며 어찌 입정할 수 있는
가? 당신의 뇌세포가 대단히 활약하는데, 법을 듣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입정할 수 없다. 법을 듣는 것은 곧 법을
듣는 것이다.

제자: 어제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더 수
련하면 사부님께서 한 뿔의 고생을 더 겪는다고,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 많은 사람을 소개하여 수련의 길을 걷게 하였기 때문입
니다.

사부: 나는 당신들이 이 문제를 생각하리라고 생각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나는 나의 방법이 있으니 당신들은 이런 일을 상관하지 말라. 당신들은 오로지 수련만 하라. 당신이 인도해 와서 법을 배우는 사람이 많을수록 당신은 공덕이 무량하다고 말할 수 있다. 사부를 도와 법을 전하는 것과 같다.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다니, 당신들 사상은 실로 활달하다. 나는 당신들 한 사람이 더 수련하면 나는 한 사람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심려함은 당신들이 상상하는 그런 걱정하는 방식과 같지 않다. 나는 무수한 법신이 있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제자: 저는 가부좌를 할 때나 꿈속에서 공중을 나는 감을 느끼곤 하는데, 여태껏 누른 옷을 입은 불가의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보았는지 보지 못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사부: 사실은 보았다. 왜 불가의 것이 없는가는 당신이 간 곳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이런 일을 당신이 보았으면 곧 그만이다. 그것에 깊이 상관하지 말고 마음을 당신의 수련에 써야 하는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無形)을 말했고 또 아무 일이나 마음 쓰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로 오늘 이 큰 법회를 조직하는 것 또한 수련을 결합해 하는 것으로서 비용을 받지 않는, 수련생의 자선성(慈善性) 조직일 뿐, 종교가 아니다.

제자: 제가 혼자 생활하기에 외인(外人)과 접촉이 적으며 식구들은 국내에 있어서 남은 시간에 저는 집에서 법을 배우는데, 이런 수련환경은…….

사부: 어떻게 수련해도 다 된다. 오로지 당신의 마음이 시시각각 자신을 수련인으로 간주하고, 배우며 연마하면 모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와서 수련하면 더욱 좋다.

제자: 사람의 수련과정 전반은 모두 각종 정보의 교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만약 당신이 연공할 때, 정말로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혹은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있어, 어떤 염두가 당신을 교란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 강렬한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제3자로, 다른 사람의 사상으로, 당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하라. 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알려주는가? 왜냐하면 당신 것이라면 그것은 곧 당신의 지휘를 듣기 때문이다. 당신의 팔, 당신의 다리, 당신

가? 그래서 풍우(風雨)가 줄곧 끊이질 않았다. 우리는 매일보를 모두 아주 바르게 걸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그 중의 한 점을 틀어쥐고 여지도 주지 않고 우리를 타격하려 하지만 그는 잘못을 잡아내지 못한다. 우리가 걸은 길은 너무나 발랐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이렇게 지나왔다. 이렇게 풍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덕을 세웠고, 비로소 후세사람들에게 말할 만한 것, 가르칠 만한 것을 남겨주며, 그가 갖가지 시달림을 받으면서 걸어지나온 교훈과 경험을 후세사람들에게 남겨준다. 그가 비로소 위덕을 구비했는데, 이렇지 않는가?

제자: 사부님께서는 속인 중에서 하는 수련은 되도록 속인 상태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는 대외에 법을 널리 선양하려 할 때 등록된 조직이 없으면 어떤 때는 사무 보기가 불편합니다.

사부: 미국에서 대법학회를 등록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학회를 속인중의 사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우리 이 법에게 합법적으로 공을 연마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 주어,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수련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할 뿐이다. 이것 자체를 사업으로 간주하여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대도무형(大道

제자: 위의 신(神)은 현대의 사람을 이미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어제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사람은 모두 마땅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부: 오늘의 사람은 확실히 매우 패괴(敗壞)되어 신도 상관하지 않는다. 모든 종교는 다 상관하는 신이 없다. 왜냐하면 신이 인류를 봄에 너무나 패괴되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관하지 않는 것과 당신을 제도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별개의 일이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생명에게도 알려주지 못하는 일이 있다. 나도 그들의 방법과 한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는 또 더욱 넓은 의의가 있다. 인류사회는 번성하여 퍼져나갈 것인데, 수련을 잘할 수 있어 원만에 이르면 부동(不同)한 층차의 천국세계로 가게 되고, 원만에는 이를 수 없지만 당초 인류의 그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한 차례 문명시기의 인류가 된다!

제자: 사부님께서는 “실증(證實)”이란 경문 중에서 우리는 마땅히 “대법은 정확한 것이며 진정한 과학이라는 것을 실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실증해야 합니까?

사부: 당신들은 문화가 있기에 우리는 요해(了解)하지 못하거나 혹은 좋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당신의 체득으로, 당신의 지식으로, 당신의 실제 사업의 성과 등등으로 모두 실증할 수 있다.

제자: 저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법을 널리 선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때에 폴란드어로 된 자료를 볼 수 있으며 저는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부: 폴란드에도 일부 중국 사람이 있으며 또 배우고 연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폴란드어로 번역하지 않았는데, 기회와 인연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 제자가 번역해야만 비로소 번역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번역하면 그를 번역해 내기가 아주 어렵다. 나도 당신 같은 심정으로 하루빨리 폴란드어 『轉法輪(전법륜)』이 나오길 고대한다. 만약 당신이 번역할 수 있으면 물론 좋다.

제자: 사람들에게 『轉法輪(전법륜)』, 대법을 소개할 때 척도를 잘 기는하지 못해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일부 비교적 높은 것을 말하여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없게 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부: 그렇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 점에 주의하라. 아직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 한 마디를 하면, 어떤 사람은 좋다, 나는 이후에 책을 볼 때 곧 마음대로 이렇게 펼쳐겠다고 한다. 이것 또한 집착인바, 당신은 또한 펼쳐낼 수 없다. 그것은 또 구하고자하는 것으로서, 단지 모양만 바꾸었음에 불과할 뿐이다.

제자: 우리는 당신과 法輪大法(파룬파파)를 단호히 믿습니다. 최근 대륙에서 일부 번거로운 일이 발생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내가 법을 전하기 시작한 그 날부터 이런 시끄러움이 끝이 없다. 무엇 때문인가? 만약 바른 법이 전해 나옴에 사(邪)한 것의 교란이 없거나, 혹은 사람이 모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보건대 곧 사람과 같은 수준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럼 곧 사람을 제도할 수 없다. 바로 어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기에, 혹은 사(邪)한 것이 바른 법을 보았기에 그것이 교란하려 하는 것이다. 이 법이 비록 전하여 내려왔지만 그가 세간에서 어떻게 유전되고, 어떻게 사람을 제도하며, 교란에 부딪혔을 때 대법 자체와 내가 어떻게 하며, 걷는 길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하는 이것은 극히 중요하다. 법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법이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직접 관계되는, 이 이치가 아닌

제자: 만약 전세(前世)에 동물이었다면 금세에 수련하여 능히 世間法(쓰젠파)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부: 내가 예를 들겠다. 혹시 한 사람이 매우 높은 층차에서 온 것일지도 모르는데 일생일세의 전생(轉生)에 꼭 모두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되고 저것도 되며 어쨌든 전생하여 이 일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 이 일보 전에 당신이 또 동물로 전생된 적이 있잖은가. 그렇다고 당신을 동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신은 다만 육도윤회 중에 있을 뿐이다.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가가 비로소 가장 관건이다.

제자: 저는 책을 읽으며 법을 배울 때 어떤 때는 깨닫지만 어떤 때는 책을 두세 번 읽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데요?

사부: 유의적으로 무엇을 깨달으려고 생각하면 보증하고 깨닫지 못한다. 당신은 이 책을 들고 오로지 보기만 하라. 구함이 없으므로 스스로 얻게 된다고 함이다. 내가 어제든 말했는데, 당신이 무슨 문제에 부딪혔다면 당신은 그 관련된 장(章)과 절(節)을 찾아보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펼쳐내지 못한다. 흔히 모두 구하는 것이 없어야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손이 닿는 대로 책을 들고 책 펼치기만 하면, 그것은 보증하고 당신이 오늘 얻으려고 하는 것일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의 인식에 서서 소개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겁을 먹을 수 있다. 당신은 부지불식간에 아주 높게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당신의 경지이다. 게다가 당신이 더 깊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 해도 당신은 말 속에서 은연중 내비칠 수 있다. 그것을, 그 본인의 표면사상은 접수하지 못하지만, 그의 그 내면 사상은 접수하는데, 받아내기 어려워한다.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소개할 때 꼭 『轉法輪(전법륜)』의 가장 낮고 가장 표면적인 이 한 층의 이치를 말해야 하며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층차제고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간단한 이치를 말해야 한다. 마치 당신이 한 사람을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당신이 대학의 이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는 소학교마저도 다니지 않았다. 그는, “나는 배우지 않겠다. 나는 못 알아듣겠다.”라고 할 것인데, 이런 이치가 아닌가?

제자: 다리가 없고(외다리), 손마저도 없어서(손이 모자람) 가부좌를 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동작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수련해야 합니까?

사부: 내가 말했다. 대법을 수련하는 것은 엄숙한 것이다. 내가 여기서 법을 전함은 사람에게 수련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수련할 수 있지만 또 사람마음을 중요시

하고 있다. 손이 없고 또 발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 한 마음이 있어 수련한다면 당신이 한쪽 발, 한쪽 손으로 해도 내가 생각하건대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관건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

제자: 정좌(靜坐)하여 입정(入定) 중에 의식상에서 이미 이 신체가 없지만 빛과 소리가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더욱 수련해 나가야 합니까?

사부: 당신에게, 정(靜) 중에서 어떠한가 하며 무슨 상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없다. 우리의, 사람마음을 중요시하는 수련이야말로 근본이다. 어떤 상태든 집착하는 것은 모두 당신으로 하여금 대단히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게 하고, 크게 제약할 것이다. 대법은 무위(無爲)이다. 말하자면 당신이 무엇을 보았다면 이것은 모두 정상적인 현상이며, 무슨 소리를 들었다면 이것도 모두 정상적이다. 그것을 상관하지 말고 또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제자: 元神(웬션)이 신체를 떠나자면 응당 의념(意念)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로 하여금 날게 하는데 좀 높게 날도록 생각한다면? 좀 멋지게 날도록 생각한다면? 혹은

로 되어감에 따르고 결혼하고 생육해야 합니까?

사부: 사실 나는 다 말했다. 인류사회는 여전히 번성하여 퍼져나가야 한다. 만약 우리 오늘의 대법제자가 일억 남짓한 것이 아니라 몇 십억이라면 이 문제는 매우 엄중하지 않겠는가? 이 문제가 아닌가? 내가 당신들로 하여금 최대한도로 속인에 부합되게 하라고 하였는바, 사실 당신들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신들이 자신에 대해 너무 높게 요구할 뿐이다. 물론 나도 너무 높게 요구함을 반대하지 않는다. 내 생각에는 될 수 있는 한 속인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회로 하여금 우리에게 대해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법에 일부 손실을 입힌다. 당신 자신이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여 또 그 마음을 참아내는 고통이 나타난다. 정말로 그 경지에 도달했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으며 그 경지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될 수 있는 한 자연적으로 되어감에 따르도록 하라.

이 관계를 잘 바로 잡도록 하라. 만일 정말로 당신이 모든 정을 모두 버렸다면 당신은 정말로 연애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나는 여전히 인류의 상태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절대로 당신이 결혼했다하여 당신이 곧 떨어져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정신병은, 곧 그의 主元神(주웬선)이 신체를 주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외래의 임의의 일종 정보, 임의의 일종 생명이 그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이것을 하게하고 저것을 하게하는 것인데, 사람의 업력 또한 그를 통제할 수 있어, 이것을 하게하고 저것을 하게 한다. 그 업력은 곧 그의 머릿속에서 그에게 사람을 욱하게 하고, 일부 나쁜 일을 하게 한다. 사람은 곧 그를 정신병이라고 한다. 나는 정신병자는 전혀 상처와 바이러스가 없음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병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다만 사람의 비정상적 상태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 이 대법은 사람을 제도하는 것으로서 主元神(주웬선)이 수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당신 主元神(주웬선)이 책임지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주겠는가? 그러므로 그를 곧 입장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업력이거나 부체인데, 어찌 그의 업력과 부체를 제도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관계이다. 뿐만 아니라 남들은 “당신이 보라. 法輪功(파룬궁)을 연마하더니 연마하여 미쳤다.”고 말할 것이라, 우리에게 아주 큰 손실을 조성할 수 있다.

제자: 연애하면 우리에게 많은 집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땅히 남자 벗과 그만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자연적으

자세를 바꾸어, 예컨대 누운 것이 앉은 것으로 변하고 얼굴이 아래로 향하든지…….

사부: 날 수 있으면 날아라. 당신이 누워서 날고 앉아서 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날든지 다 마음대로다. 그러나 그것을 일종의 재미로 간주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연출해 달라고 말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연출해도 당신은 모두 사람의 사상으로 대하며 헛허 웃어버릴 것이다. 당신은 불법신통의 진정하고도 위대한 의의가 있는 곳을 보지 못한다.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일반적인 재미있는 일로 삼지 말라.

제자: 元神(웬선)이 신체를 떠나 본래는 아주 높게, 아주 멀리 날 수 있었는데 근래에 갑자기 높이 날지 못하나요?

사부: 아마 당신이 집착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수련 중에서 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지 않게 한다. 만약 너무 빈번하여 당신의 수련에 영향 준다면 그것은 안 된다. 당신의 수련에서 충차를 제고함이야말로 제1위이다.

제자: 저는 당신의 法輪大法(파룬파파)를 탄복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매일 당신의 법상(法

像) 앞에 과일을 공양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부: 신(神)이 인간세상에서 사람을 제도함에 사실 그도 물질을 먹는다. 그러나 사람의 것을 먹지 않는다. 무엇을 먹는가? 여러분이 알겠지만 나는 무슨 물체나 모두 다른 실체가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신 그 음식물의 다른 실체를 먹는다. 당신들은 제자이고 나는 사부이기 때문에, 물론 나는 당신에게 사양하지 않는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 밥을 이쪽에 차려놓을 때, 그쪽에서는 이미 들고 갔다. 그런 유형적인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이 이 한 마음이 있어, 굳이 이렇게 하겠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을 말한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당신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당신이 매우 잘 수련했다면 내가 당신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당신이 날마다 나에게 절을 해도 당신이 잘 수련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주 괴로운데, 이 이치가 아닌가? 그것은 다만 형식일 뿐이지만 역시 한 가지 마음의 표현이다.

제자: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매우 곤혹스러울 때 저는 힘들여 생각합니다. 이때 저는 하나의 답안을 상상해내게

사부: 당신들은 적막이 사람의 일체를 소각한다는 것을 모른다. 과거의 그 화상(和尚)은 수련 중 무엇에 의존했는가? 그는 어떻게 수련 성취할 수 있었는가? 그의 가장 큰 고통은 곧 적막이다. 당신이 말해 보라. 그는 어떤 고생을 겪는가? 참아내기 어려운 적막이다. 과거 산으로 들어가 도를 닦는 사람, 그는 어떻게 득도(得道)할 수 있었는가? 세상의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도 친한 친척과 친우가 있고, 인간세상의 낙이 있다. 그 화상은 산에서 혼자 고통스럽게 수련하면서, 어떤 사람과도 접촉하지 않는바, 그런 참기 어려운 적막은 사람의 아주 많은 집착심과 각종 욕망을 갈아 없앨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 길을 걷지 않고, 우리는 직지인심(直指人心)으로 가장 빠른 길을 걷는다. 당신으로 하여금 몇 십 년을 갈아 닦게 하는 것은 내가 보건대 시간적으로 늦다.

제자: 정신병은 수련반에 들어갈 수 없지만, 광상증(妄想症), 강박증(強迫症), 공황증(恐慌症) 등 환자도 모두 정신병환자에 속하는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부: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인류가 정신병이라고 말하는 그 병은 나의 것과 이해가 같지 않다. 내가

고히 함과 동시에 당신의 사상중의 업력을 없애고 있다. 이런 정황이 나타난 대다수는 사상업이 비교적 중해서다. 그러니 主意識(주이스)를 확고히 함에 특히 주의하라!

제자: 자신이 단독으로 책을 보고 연공하면 문제가 없지만 연공장에 가면 곧 정치학습을 하는 감각이 있는데요.

사부: 아마 당신 마음속에 정치학습에 대한 반감이 있어 반대하는 심리가 너무 강하여 조성되었나? 형식에 있지 않고 내포에 있는바, 그 역시 강렬한 집착심이 아닌가? 역반심(逆反心)인가?

제자: 法輪大法(파룬파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간행물에 실으면 단장취의가 아닙니까?

사부: ‘간단한 소개’ 그것은 나의 법 중에서 발취해 낸 것이 아닌, 하나의 ‘간단한 소개’이기에 단장취의가 아니며 바로 나의 이 법을 개괄하여 소개한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이 일을 했다. 그러나 매번마다 모두 매우 엄숙히 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반복적으로 토의해서야 비로소 하였다.

제자: ‘적막(寂寞)은 수련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되고 어떤 때는 또 머릿속에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사부: 이것은 속인 중에 늘 나타나는 것이다. 속인이 문제를 생각할 때 늘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약 당신이 수련하고 법을 배우는 중에서 아직도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것은 최저한 법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한다. 사업 혹은 생활 중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것은 사업이다. 그러니 당신도 수련과 갈라놓아야 한다. 수련할 때 당신은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아무것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업할 때 당신이 사업에 투입하는 건 관계없다. 화면과 답안이 출현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공능의 일종 표현이다.

제자: 머리가 언제나 비어 있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과 선종(禪宗)의 비움(空)은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사부: 이 구별은 대단히 크다. 당신이 아무리 비워도 당신이 당신의 의식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비움(空)이다. 그러나 선종의 그 비움(空)은 다 없는, 아무 것도 모르게 되는 것으로서, 연마하는 것도 그가 아니다. 그는 연공을 하지 않고 다만 정지(靜止)해 있기만 한다. 그러므로 그가 연마한 것은 다른 사람인 副元神(푸웬션)이다.

제자: 사부님께서 어제 하신, “지금 지구 위의 사람은 모두 마땅히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란 이 한 마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사부: 사람의 가장 표면적인 이 껍데기부터 말해보자. 지금의 인류에게는(물론 당신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수련 중에 있기 때문이다) 십악(十惡)이 구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모두 내력이 있는, 곧 이런 관계이다. 진정한 인류, 과거의 사람은 모두 다른 공간, 곧바로 저승(陰間)에 있음을 나는 발견하였다. 전쟁으로 전사함에 잇달아 속속 세상을 떠났으나 다 위로 전생하지 못했다. 인류는 모두 지금의 내력이 있는 이런 생명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모두 사람처럼 미혹되어야 했으며, 또 마찬가지로 인류사회의 부패에 따라 부패되어야 했는바, 곧 이런 관계이다. 감히 천담(天膽)을 무릅쓰고 내려왔기에 비로소 이렇게 고심(高深)한 법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또 모두 법을 얻으려 온 것이 아닌, 또 법을 파괴하러 온 것도 있으므로, 나는 다 사람이 되려고 온 것은 당연히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두 수련하러 오는 것이 아닌, 전문적으로 대법을 파괴하러 오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지옥으로 처넣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미 못쓰게 되어 법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떤 충돌이 있습니까.

사부: 아무런 충돌이 없다. 세례는 사람이 한 것이고 표면적이며 신이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말했다. 신은 사람의 마음을 승인하지, 사람의 그 어떤 형식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자: 당신께서는 우주는 성(成), 주(住), 괴(壞)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나쁘게 됩니까?

사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음식물, 그것은 왜 썩는가? 사람은 왜 늙는가? 철은 왜 녹스는가? 돌덩이마저도 모두 풍화되는데, 곧 이러한 뜻이잖은가. 다만 그것은 더욱 긴 시간이 있을 뿐이다. 시간이 부동하며 상당히 길다. 사람으로 말하면 그것은 불가사의한 것이어서 허물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속하는 것 같다.

제자: 최근 두 달 동안에 줄곧 마의 교란에서 벗어나지 못해 귓가에서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고, 꿈속에서 일상생활 중의 좋지 못한 정보의 교란이 있는데요.

사부: 책을 많이 보면 무슨 문제나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방금 책을 많이 보라고 말했는데, 사실 당신이 내가 한 이 말의 함의를 꼭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이 책은 만능이며 못하는 일이 없다. 당신 자신의 主意識(주이스)를 확

제자: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기에 부동(不同)한 층차공간의 신이 모두 이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층차 중의 고급생명이 배우는 경문과 우리들이 보는 경문이 같은 것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절대 같지 않다. 부동한 층차에는 부동한 층차의 법이 있다. 이 백지에 검은 글자는 사람에게 보게 하는 것인데 동일한 한 부의 법이 부동한 층차에 이르면 그의 글자, 내포가 완전히 모두 같지 않다.

제자: 마귀가 전세(轉世)하여 인간세상을 화란(禍亂)하는데, 고급생명이 어찌하여 지옥 귀신의 전세를 허용합니까?

사부: 그 귀신도 모두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不同)한 층차에는 부동한 층차의 마가 있다. 어떤 것은 상생 상극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사람의 업력이 크기 때문에 상응하여 온 것이며, 또 파괴된 구(舊) 세력이 법을 교란하고자 온 것도 있다.

제자: 제가 작년에 기독교(基督)의 세례를 받았지만 현재 저는法輪大法(파룬따파)가 비로소 진정한 대법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할 것을 결심

얻을 수 없는 것 등이 있다. 또 이미 법을 더 얻을 자격이 없는 것도 있다.

제자: 저는 덴마크에서 왔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행히도 법을 얻었습니다. 저는 마땅히 덴마크에 돌아가 법을 널리 전해야 합니까? 저는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염려됩니다.

사부: 당신은 이럴 필요가 없다. 우리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법을 얻게 할 때, 흔히 모두 “이 책은 참 좋습니다.”라고 친구에게 말한다. 그 친구는 “그래, 우리 좀 볼까.”라고 한다. 곧 이렇게 무의식중에 그는 배우게 된다. 모두 매우 간단하다. 간단하지만 오히려 우연하지 않다. 물론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은 “나는 이렇게 좋다고 느끼는데 당신은 왜 배우지 않는가?”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아마, 어쨌든 배우지 않겠다며, 시간이 없다거나 혹은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배우게 한다면 이는 곧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했는가? 당신은 남에게 억지로 얻게 하고, 얻게끔 사람을 핍박하고 있다. 강요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에게 법을 줄 수 없다. 그가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이 법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로 하여금 보게 할 수 있는데, 이 이치가 아닌가?

제자: “바로 그가 개공개오(開功開悟)하는 전야의 그 순간에 그 자신의 공의 10분의 8을 그한테서 꺾어 내리는데 이어, 그의 心性(썬썬) 표준마저도 모두 끊어 내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부: 나는 이미 이 이치를 말했다. 당신의 그 공을 꺾는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원만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을 원만이라 하는가? 당신 자신이 수련의 표준에 도달하고, 당신의 공, 당신의 복덕(福德) 일체가 모두 원만에 이르는 것이다. 그 부처는 무엇을 요구하면 무엇이 있고, 무슨 능력을 요구하면 무슨 능력이 있는데, 어디에서 오는가? 모두 당신 자신이 치른, 즉 바로 心性(썬썬)과 함께 공존하는 위덕 곧 “공(功)”을 구성하고 원만을 이룬, 심혈(心血)에서 오는 것이다. 당신에게 이러한 것이 없으면,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불체(佛體) 주위에는 동그라미(圓圈)가 있는데, 그 옛날 절 안에 그려 놓은 부처는 모두 달(月亮) 속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부처 자신의 그 세계이다. 이 세계를 원만에 이르게 해야 한다. 그것을 원만에 이

르게 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오직 공이 있을 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슨 부처이겠는가? 당신이 사람을 구도(救度)하는 좋은 일을 하려해도 당신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모두 있어야 한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의 자신의 세계가 있어야 비로소 무엇을 요구하면 무엇이 있게 된다.

제자: 만약 오늘 이런 대법교류회 같은 것이 없다면 心性(썬썬)제고를 얻기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것은 정상적입니까?

사부: 교류회는 수련생의 제고와 촉진작용에 대하여 아주 크게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또 법을 널리 선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런 형식은 아주 좋다. 이는 내가 느끼건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바, 확실히 그러한 정진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이점을 찾아내게 하고, 그들을 따라오게끔 재촉한다. 만약 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곧 법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 법이 있음에 배울 수 있다. 법회는 법을 널리 선양함과 촉진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 역시 어떤 사람은 법회를 통해 법을 얻을 것이다.